

#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의 현주소 돌아보는 권위 있는 행사”

‘2010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20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해양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올해로 19 회째를 맞이한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종승 서울경제신문 사장을 비롯해 정부관계자 및 수상자들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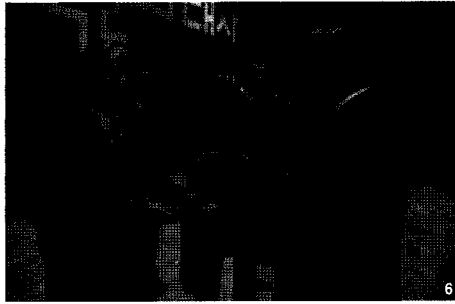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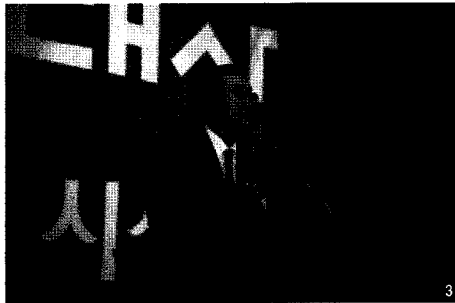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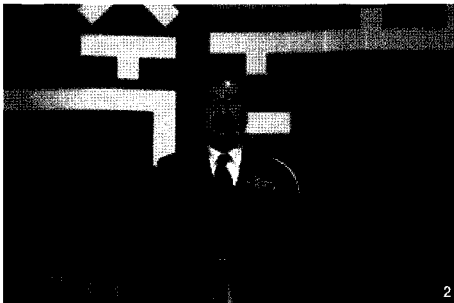
최영집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그동안 개발과 양적성장이 급선무였던 시대에 건축문화 창달을 추구하고, 삶의 질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국격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행사였다.”며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건축문화 품격을 높여가면서, 문화와 예술, 건축문화로 힘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건축문화 선진국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인 박홍근 호서대학교 교수의 심사보고 이후 시상식에서는 준공건축물부문, 계획건축물부문,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공로상에 대한 시상 이어졌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치사에서 “건축문화대상은 19년 동안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축문화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고품격 국토경관을 위해 경관심의를 의무화하는 경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 건축사의 건축문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

수상작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동 장소 제3홀 ‘한국건축산업대전2010’ 전시장에서 전시됐다.



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전경
2. 개회사\_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3. 축사\_이종승 서울경제신문 사장
4. 축사\_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5. 준공건축물부문 시상
6. 계획건축물부문 시상
7. 공로상 시상\_임종건 前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8.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을 수상한 이순조 건축사
9. 한국건축문화대상 리셉션
- 10, 11. 한국건축산업대전 2010에서 열린 수상작 전시장 전경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0

## 5일간 3만 여명 방문... 연계행사도 풍성

올해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친환경 건축의 미래'란 주제로 개최된 '한국건축산업대전 2010'이 10월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지난 20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종승 서울경제신문 사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컷팅 후 정 장관과 내외빈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참여한 업체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최근 화두인 '친환경건축'을 보다 폭넓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친환경 건축자재 전시를 비롯해 첨단시스템과 설비, 포럼 및 강연회는 친환경건축을 아우르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건축사사무소의 참여로 일반인과 건축전문가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또한 동시에 진행된 건축사전문교육은 △주거단지 환경설계 △친환경과 BIM △제로에너지 하우스 소개 △친환경 패시브 건축 등의 주제로 열려, 건축사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친환경건축 학습의 장'이 되기도 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한국농어촌건축대전 등과의 연계로 전국의 많은 건축사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광주에서 올라온 한 건축사는 "작년에는 전시회를 관람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행사들이 동시에 열려 꼭 참석하고 싶었다. 미국의 AIA대회와 같이 교육과 전시가 함께한 행사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리드엑스포와 공동주최로 진행하여 국내외 84개 업체 총 367부스로 구성되었으며, 3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1. 2010한국건축산업대전 개막식  
4. 건축사 연수교육 전경  
7. 친환경 건축·리모델링 포럼

2.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내외빈들  
5. Ar, Knut Goeppert 특별강연  
8. 참가업체(경기도시공사) 홍보부스

3. 전국건축사미술전을 관람 중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맨 우측)  
6. 전시장 전경

#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전국 4,000여명 건축사 참여, 녹색비전 선포

'녹색도시를 창조하는 건축사'란 슬로건 아래 지난 10월 22일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0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4,000여명의 건축사들이 참가, 화합과 교류의 장을 이뤄냈다.

이번 대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정동영 의원,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건축계에서는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과 유관단체장이 참석했다.

큰 울림으로 시작된 1부 오프닝 공연 '수목화대복'은 대회장을 가득 매운 수천 명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사회를 맡은 김병찬 아나운서는 몇몇 실수를 노련한 진행으로 재치 있게 무마시켜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했다. 내외빈과 16개 시도건축사회의 입장에 이어 안길원 대회조직위원장과 16개 시도회장은 전국에서 참석한 건축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수천 명의 건축사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안길원 대회조직위원장의 개회선언과 녹색비전 선포식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건축은 도시의 얼굴이며, 도시의 문화수준을 가름하는 기준이다. 건축

사 여러분이 만든 건축물들은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생명력 있는 예술작품이자 관광상품이다. 이번 대회가 참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고 우리 건축 문화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건축사들의 창작행위에 대해 언제나 감사함과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건축사 업무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며, 본인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국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본 대회에 참석한 일본(타로 아사하라), 태국(타와짓 찬드라사카), 라오스(쌍캄 피니스)의 건축단체장들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했으며, 백승천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이 경기지역 여성건축사들의 불우이웃돕기 일환인 '경기무한돌봄사업'에 기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2부 '축제의 한마당'에서는 개그맨 배동성의 사회로 초청가수 축하공연, 회원 장기지랑(김용철 건축사, 김완식 건축사),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막을 내렸다.

2012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전경  
 2. 전국 건축사회 입장  
 3. 사회\_아나운서 김병찬  
 4. 안길원 조직위원장과 16개시도회장의 '녹색비전 선포식'  
 5. 건축사헌장을 낭독\_권영호(맨 좌측), 이미정(중간) 건축사  
 6. 7. 개회선언 선서 중인 내외빈들  
 8. 대회사\_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9. 환영사\_김문수 경기도지사  
 10. 환영사\_백승천 집행위원장  
 11. 축사\_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  
 12. 축사\_무소속 이인제 국회의원  
 13. 축사\_최 성 고양시장  
 14. 해외 건축단체장 명예 회원증 수여식  
 15. 차기 개최지(광주광역시건축사회) 대회기 전달  
 16. 경기무한돌봄사업 기금 전달  
 17. 회원장기자랑(김용철 건축사)  
 18. 2부 행사\_행운권 추첨